첫눈 온 날, 할머니 집

도윤이네 겨울 하루





아침에 눈을 떴더니
창밖이 하얘요.

도윤이는 내복 바람으로 달려가
창문에 코를 꾹 붙였어요.

“엄마, 눈이다! 첫눈이야!”



할머니 집 파란 대문 앞.

할머니가 대문 밖까지 뛰어나와
도윤이 손에 빨간 털장갑을
끼워 주셨어요.

**“아이고, 우리 도윤이 손
시리겠다.”**



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.

도윤이 키만 한 눈사람.

눈은 연탄 조각,

그럼 코는 뭘로 하지?

“귤! 코는 귤이야!”

도윤이가 정했어요.



아빠가 감나무 가지를 툭
흔들었더니
눈이 **와르르,** 아빠 머리 위로.

안경까지 하얘진 아빠를 보고
엄마는 웃느라
사진이 다 흔들렸어요.



집에 들어오니

할머니표 군고구마.

할머니가 껍질을 까 주시면

도윤이는 호호 불어서 한 입.

입가에 까만 수염이 생겼어요.



창밖엔 아직도 눈이 내리고,

도윤이는 할머니 무릎을 베고

스르르 잠이 들었어요.

할머니는 도윤이 머리를

오래오래 쓰다듬어 주셨어요.

끝

도윤이 네 살, 겨울.

첫눈 온 날 할머니 집.